



공민지(왼쪽)가 탈퇴 하면서 3인 체제로 활동하는 걸그룹 투에니원.

# '7년 징크스' 멤버 탈퇴·해체... 위기의 아이돌

개인 활동늘고 후배 그룹 거센 도전에 완전체 유지 힘들어

투에니원·비스트·시크릿 등 재계약 앞두고 각자 진로 찾아 나서

걸그룹 투에니원의 공민지가 팀에서 탈퇴한... 2009년 데뷔해 K팝 대표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멤버들의 개별 활동과 박탈의 구설 등으로 팀 활동이 2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소속사는 "멤버들과 재계약 논의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문제는 최근 터져 나온 장현승의 탈퇴설이다. 장현승이 무대에서 성의없는 태도를 보이고 해외 팬미팅에도 한차례 불참하자 멤버들과의 불화설로도 번졌다.

역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크릿은 이미 지난해 한차례 잡음이 일었다. 멤버들이 솔로 가수 및 연기자로 활동하며 2년간 앨범 활동이 뜸한 사이 일부 멤버 간 불화설이 떠돌고 있다.

엠블랙은 이미 멤버 이준과 전동이 2014년 잇달아 탈퇴하고 3인조로 7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은 세 멤버 중 지오가 지난 2월부터 군복무 중이어서 팀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소속사 제이투컴프 관계자는 "탈퇴한 두 멤버는 계약 만료 시점이 아니었지만 원만한 논...의 끝에 회사를 떠났다"며 "세 멤버의 팀 활동도 지오가 군복무를 마쳐야 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 끝에 회사를 떠났다"며 "세 멤버의 팀 활동도 지오가 군복무를 마쳐야 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7년 징크스' 왜... "팀 활동 뜸해지고 각자 진로 생겨" = 대체로 팀 결성 4~5년까지는 팀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후 멤버들이 개별 활동에 치중하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팀 자체는 정체기에 접어들다.

인기 그룹으로 성장했다더라도 팀 활동이 뜸해지면 후배 그룹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기 마련. 지금도 방탄소년단, 여자친구, 트와이스 등의 후배들이 싹튼 세력으로 떠올랐고 세븐틴 등 치고 올라와 파르파리한 그룹들도 다수 대기 중이다.

멤버들이 솔로 음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개별 활동에 치중하는 동안 균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멤버가 팀을 넘어서는 스타로 부상하거나, 각자 적성을 찾아 진로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면 이들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멤버들이 솔로 음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개별 활동에 치중하는 동안 균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멤버가 팀을 넘어서는 스타로 부상하거나, 각자 적성을 찾아 진로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면 이들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 "남진부터 엑소까지 세대간 연결고리"

SBS '판타스틱 듀오' 17일 첫 방영... 가수와 팬 듀엣 경연

이선희·김범수·임창정·태양 출연... '복면가왕'과 맞붙

"이미 자리를 잡은 스타들이라면 노래하는 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 새로운 걸음을 느끼고 싶다면 저희 '판타스틱 듀오'를 찾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기 노래를 하는 거라 가창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웃음)"

최영인 SBS CP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판타스틱 듀오' 기자간담회에서 가수 섭외의 어려움을 이렇게 예들러 표현했다.

'판타스틱 듀오'는 오는 17일 첫 방송하는 가수와 일반인이 듀엣 무대를 꾸미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설 연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뒤 정규 편성됐다.

'판타스틱 듀오'는 가수와 일반인의 듀엣 무대라는 점에서 MBC TV '듀엣가요제'와 비슷한 콘셉트인 데다 MBC '복면가왕'과는 같은 시간대에 맞붙는다. 제작진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판타스틱 듀오'만의 특별한 점 '사람'이다.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겠지만, 가창력에만 집중하지는 않는다. 음악 애플리케이션 '에브리싱'을 통해 누구나 가수의 듀엣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영상으로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좋아하는 가수와 호흡을 맞춰볼 수 있고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를 열창하는 이들을 보며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 김 PD는 "완성된 무대보다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듀엣가요제'와 다른 점인 것 같다"며 "누구나 나의 노래를 열창하고, 그 덕에 노래의 생명력이 연장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건 가수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경연 PD는 "우리가 대중음악의 소비 구조는 세대의 소통이 단절됐다. 가요 무대를 보는 분들은 절대 인기 가요를 보지 않는 식이다.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 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저의 목표는 조가가 남진을 알게 되고, 저희 부모님이 EXO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방송은 17일 오후 4시 50분.

1회에는 가수 이선희, 임창정, 태양, 김범수가 출연하고 '대한민국 오빠 무대의 연대기'를 주제로 한 2회에는 변진섭, 조성모, EXO가 출연한다.

선공개된 이선희와 규현의 듀엣 무대처럼 '스페셜 콜라베이션' 무대도 한 회에 한 번 정도씩 마련된다. 제작진이 따르면 스케줄 문제로 미뤄지긴 했지만 원래 2회에는 남진 씨가 출연하기로 했었다.

올해 연말 남진 씨가, 왼쪽 끝에 EXO가 앉아 있는 그림이다. 음악 예능에 대한 리포트를 만든 적이 있다는 김영욱 PD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소비 구조는 세대의 소통이 단절됐다. 가요 무대를 보는 분들은 절대 인기 가요를 보지 않는 식이다.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 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저의 목표는 조가가 남진을 알게 되고, 저희 부모님이 EXO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방송은 17일 오후 4시 50분.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0 4토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30 KBC 모닝와이드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00 아침경채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생송 올버 아침	10 선거연설 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00 신문이야기 들춰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40 여유 만만		
20 시사인사이드 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앙코르 특집 다큐멘터리 (애매이징 아세안)	00 닥터 365(재)
				05 새기의 라이벌 미라클 만든 천재(재)
04 4.13 총선 D-1 뉴스 특보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밤가족(재) 55 안녕 우리말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공지락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킹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비타민(재)		
30 직인직설	00 선거연설방송 (광주, 전남 지역 후보 및 광주 동구청장 후보)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00 숨터(재)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책상 위기	00 MBC 뉴스 10 퓌? 뒤편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학생 스페셜 30 고교 다이노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PD의 자연 담은 한끼(재)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 뉴스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피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10 닥터365 15 선거연설 방송 (국민의당 김경진)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45 선거연설방송 (노남수·한남숙·강은태)	2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15 TV블로그 공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20 제20대 총선 후보자 연설 (다민주 광산구를 이용섭)	50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 인터뷰 이사람			
20 먹거리 X파일(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45 선거연설 방송 (새누리박석만·더민주최진)
			30 리얼스토리 논	05 정은표의 세계유산순례 40 선거연설방송 (국민박지원·더민주조성기)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9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대박)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	10 풀타는 청춘
00 천개의 비밀 여메이징 스토리(재)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한국인의 밥상(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0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 생생영어 05:30 건강안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자연의 색 뉴클레오나이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구이와 김차 부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사종합 12:40 지식채널e 12:50 숨은 한국찾기 13:3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 14:00 로보카 풀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피터래빗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뎡동댕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풀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거대한 역사를 품은 섬, 타이완-자연의 미천, 루키아족을 찾아서> 21:30 한국기행 (볼빨간 문빈, 설량) 21:50 EBS 다큐프라임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아쟁의 기록> 22:45 리얼극장 행복 (기러기야 13년 그리고 이혼, 개그맨 배성정과 딸) 23:35 시사종합 24:05 지식채널e(재)
知天命이 보는 <b>오늘의 운세</b>	4월 12일(음 3월 6일 甲子)
<b>子</b> 48년생 서둘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60년생 언제 어느 때라도 새로운 일에는 꺼여들지 않는 것이 좋다. 72년생 인식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84년생 아이에 버려라. 행운의 숫자 : 01, 54	<b>午</b> 42년생 결정타를 때릴 때가 왔었다. 54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 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66년생 소리지 불러보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 78년생 형식적인 면은 멀리하고 실질적인 점을 중시 해야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5, 52
<b>丑</b> 49년생 노약의 이익만을 위해 몰려드는 이들로 가득 차 있으니라. 61년생 늘 바귀는 것이니 완벽한 마무리를 하려들 필요는 없다. 73년생 준비되지 않았던 보류하는 것도 괜찮다. 85년생 착장이 사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30, 11	<b>未</b> 43년생 조건이 양호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55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가면 부를 이루는 원천이 되어 준다. 67년생 생 투명하지 않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79년생 착각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5, 66
<b>寅</b> 50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62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가 보인다. 74년생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86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뛰어 들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83	<b>申</b> 44년생 감각이 둔해지면서 자주 실수를 반복하는 형상이다. 56년생 기준과 체계가 서야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 68년생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속살할 일이 생긴다. 80년생 임의로 인한 화근을 짓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1, 47
<b>卯</b> 51년생 고요한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63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청된다. 75년생 제대로만 한다면 대박 나겠다. 87년생 과거의 관계들이 소중한 법이니 이익을 떠나서 정성껏 배려하는 것이 도리이다. 행운의 숫자 : 45, 56	<b>酉</b> 45년생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면 그만이다. 57년생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69년생 사법귀경과 인과응보의 근본적 철학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없음을 깨닫게 된다. 81년생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70, 30
<b>辰</b> 40년생 아무것도 다짐해야 할 때이다. 52년생 백 백하게 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64년생 복잡다단한 일로 인해서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다. 76년생 요령이 없으면 머리 등을 고생시킨다. 88년생 시기가 효과를 좌우한다. 행운의 숫자 : 18, 38	<b>戌</b> 46년생 정성껏 가꾸면 단 알찬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을 맞게 된다. 58년생 들추어내는 것보다는 가만히 덮어 두는 편이 더 낫다. 70년생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하자. 82년생 간단명료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64, 50
<b>巳</b> 41년생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바로 그것이다. 65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먼저 행해야 할 것이다. 77년생 수고로운 일 이긴 하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89년생 마음만 달리 먹는다면 바로 행운을 잡는 셈이다. 행운의 숫자 : 49, 21	<b>亥</b> 47년생 상대가 가장 고려해주는 부분을 끊어 주어하면 효과적이다. 59년생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높은 산을 오르는 이가 보인다. 71년생 상조 거의 비슷하다. 83년생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7,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	